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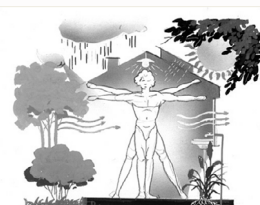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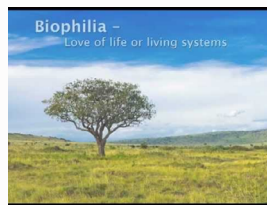
# 녹색 - 건강 위상학 - 그인을 통한 건강·행복 증진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1. 머리말

산업기술과 기계문명 발달은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선사했다. 현대인에게 기계는 편리와 효용을 넘어 신체일부처럼 간주되고 있다. 물질문명과 기계는 인간에게 편리와 쾌적함을 선사하였지만 동시에 생물적 존재로서 인간 본연의 능력이나 특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신체의 운동능력 저하는 현대문명의 어두운 단면으로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지점이다. 신체능력에 관련한 현대인은 인류의 조상들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의 31.1%가 신체적 비활동성(physically inactive)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친 도시에서 우리가 접하는 자연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연은 아니다. 대체로 그것은 더럽거나 지저분한 것은 보이지 않은 곳으로 치워버린 채 아름답고 깔끔하게 정리된 ‘단장된 자연’일 뿐이다. 거칠고 위험한 것도 없애 버렸으니 ‘순화된 자연’이다. 편리함을 가져다 준 기계문명이 인간신체 기능의 위축을 초래했다면, 한결 순화되고 인공화된 환경은 인체 면역기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자연의 녹색환경과 건강 간의 관계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녹지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게 고찰하고자 한다.



## 2. 녹색 환경과 건강·행복 간의 관계

자연은 인간의 삶의 질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자연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존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자연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지닌 질병, 오염, 자연 재해, 기근 등이 생존 차원에서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면, 깨끗한 공기와 물, 아름다운 경치, 넓은 잔디밭 등은 인간의 지각과 행동에 반응되면서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은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필요 차원을 넘어서 심미적, 감각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까지 미친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것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웰빙이 완전한 상태’로 정의한다. 최근 들어 건강을 인간의 권리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그 건강을 조장하는 환경적 건강 역시 인간의 중요한 권리로 간주되고 있다(Taylor, et al., 2001).

## 1) 녹지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효용

### 육체적 효용 (physical benefits)

크든 작든 인간 활동의 무대는 자연이다.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먹고 일하고 운동하면서 육체적 건강을 유지한다. 도시 내 자연은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거나 육체적 활동을 위한 장이 되기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자연과 접촉으로 얻게 되는 육체적 효용은 근육이나 골격을 직접 움직임으로써 유발되는 운동량으로 얻는 건강이다. 자연 환경 속에서의 운동을 통해 근육의 이완과 수축, 관절의 유연성을 키우고 심장이나 혈관, 폐 등 신체 기관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육체적 생장이 왕성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 생리학적 효용 (physiological benefits)

자율 신경계에 작용함으로써 인체의 기능을 증진하게 되는 생리학적 과정은 자연과의 접촉으로 얻는 효용의 경로를 설명해주는 데 유용하다. 자연에의 접촉은 자율 신경계의 작용을 촉발하여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로감을 저감 혹은 해소하고 만족감을 고양시켜줌으로써 인체의 기능을 증진시켜 준다. 창문을 통해 자연을 접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술 후 회복과정도 빠르고 입원기간도 짧다는 연구결과는 이 같은 생리학적 효과가 작용한 산물이다(Ulrich, 1983). 근래 들어와 식물 키우기나 정원 가꾸기 등을 치유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생리학적 효용에 주목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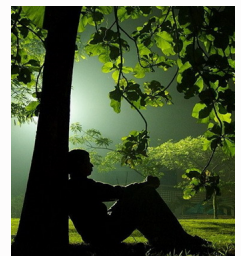
### 정신적 효용 (spiritual benefits)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인간이 자연과 접촉으로 얻게 되는 정신적 효용은 자연과의 정신적 만남과 교감을 통한 상호 연계감이 정신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른 여타의 효용에 비해 정신적 효용은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전제로 한다. 대체로 그것은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과 닿아 있는 정신적 차원과의 교감을 통해 달성된다. 조선의 선비들이 매화 한 그루와 학 한 마리만으로 산림 속에서 자족하며 살려고 한 것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개척시대에 인디언들이 유럽에서 건너 온 서양인들에게 자연에 대한 정신적 유대감을 일관되게 강조한 것 등은 그 좋은 예이다.

### 심리적/ 감정적 효용

#### (psychological/ emotional benefits)

자연과의 체험은 육체적인 차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온 몸으로 자연을 만나고 체험하는 과정에 맛보게 되는 몰입감은 심리적 해방감이나 기쁨으로 승화된다. 이러한 심리적 효용은 외부 세계로서 자연을 대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인간의 인지적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물적 환경은 개인의 성향이나 기억, 지식체계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지각되고 인식된다. 그것들은 심리나 감정에 작용함으로써 기분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연 속에서의 명상이 불안이나 잡념을 버리고 집중



력과 사고력을 키워 몰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준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 사회적 효용 (social benefits)

사회적 접촉, 사회적 연대, 사회적 자본 등은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킨다(Kawachi et al., 1999). 근린 환경에서 주민의 접촉을 늘리고 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용의 영역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공동 주거지에서 나무와 잔디밭의 존재여부가 이웃 간의 강한 사회적 연대감 형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연구결과는 녹지 환경이 주는 사회적 효용을 잘 드러내 준다(Coley et al., 1997; Kuo et al., 1998; Kweon et al., 1998)).

## 2) 자연과의 접촉이 건강과 행복에 작용하는 기제

자연과의 접촉이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으로 관련된다고 하는 데에는 세 가지 근거를 들 수가 있다(Mackerron and Mourato, 2013). 첫째, 자연 접촉의 경험이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 감소와 주의력 회복을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효용경로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자신의 생존에 절대 필수적인 자연에 대해 애호하는 감정을 갖거나 정신적 유대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생물적 존재로서 인간이 생존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본능적인 성향과 닿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연환경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적 유해요소를 낮추어 줌으로써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건강에 해로운 소음이나 공기 오염, 교통소음과 공해 등은 삶의 환경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 내 자연이나 녹지가 쓰레기나 위험요소로 인해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면 오히려 건강과 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오염되고 더러워진 환경은 각종 병원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진원지로 바뀐다. 도시 속 자연이나 녹지는 그런 위해요소들을 저감시키거나 차폐해 줌으로써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보다 직접적인 차원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촉발하고 고무시켜줌으로써 행복에 기여한다. 신체적 운동, 레크레이션, 그리고 사회적 만남 등은 모두 도시 내 녹지나 자연환경을 무대로 하여 일어난다. 잘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관리된 녹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들어가서 뛰어 놀고 싶은 ‘적극적인 호기심’을 저절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신체 운동을 조장한다(Thompson, 2011). Kaplan(1898)은 이를 관심을 유발시키되 성찰할 여지를 남겨주는 미적 경험으로 설명한다. 우리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잘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3) 건강과 행복 결정인자로서 근린 환경

일상적인 삶의 터로서 근린 생활환경은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결정 인자이다. 거주자의 신체적 활동은 물론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은 그것을 수용하는 그릇으로서 근린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근린지구 내에 공원과 같이 잘 관리된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녹지 공간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녹지에의 보행 접근성이 높아 주민, 특히 노인들로 하여금 걸어서 이용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옥외 공간의 높은 이용은 곧 주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옥외공간은 더 잘 관리되어 주민 전체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순환고리 효과를 갖는다. 수용성(affordance)이라는 개념은 공간

과 개인적 속성에 따라 달리 작용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활동을 발생하도록 하는 기제로서 중요하다. 근린지구 내에 잘 조성된 녹지 공간은 활동을 유발해낼 수 있는 환경적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장소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진다. 일상생활 공간영역 속에서의 녹지 수준은 주민의 휴가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 3.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녹색 - 건강 위상학

녹색-건강 위상학이란 녹색환경을 인간의 건강과 관련시켜 고찰해 보려는 의도에서 필자가 고안해 본 개념적 용어이다. 하지만 도시 내 녹색 환경을 신체 감각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장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원래부터 있어 왔던 효용이 새삼스럽게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녹색환경이 주는 다양한 효용 중에서 특별히 건강과 관련된 차원에 주목하려는 연구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시각은 녹색환경이 갖는 건강상의 효용을 보건, 의료, 환경과학, 심리, 사회, 도시, 조경 등 다양한 분야 간에 걸친 상호관련성과 작용차원으로 이해하려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 1) 녹색-건강 위상학의 역사

유사 이래로 자연은 인류에게 있어서 단순히 거주를 위한 터전만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요소를 구하는 장소였고,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대상이자 무대였다. 이상적인 삶의 터의 모델로서 이상향도 자연을 재구성하고 조합하여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 이상향은 인간이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기쁨을 즐기는 곳으로 낙원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Thompson, 2011). 고대 수메르 지방에서는 일체의 병마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간주되기도 했다(Delemeau, 1995).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도 자연경관은 건강과 관련된 요소로 주시되었다. 그리스의 치유의 신 Aesclepius을 모시는 신전은 샘, 목욕장, 체육시설, 그리고 치유정원을 갖춘 채 경관이 좋은 초지에 건립되었다(Larson and Kreitzer, 2013). 물 공급, 대상지 내의 경관과 외부로의 조망은 당시 도시와 별장의 입지를 정할 때 가장 우선시 되었던 기준이었다.

중세의 대표적인 병원은 대체로 약용과 식용 식물을 키우는 정원과, 걷거나 앉아 쉴 수 있는 중정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에 위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병원들은 환자들의 레크레이션용 초지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넓은 부지를 확보하려 했다(Thompson, 2011). 이로운 식물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햇빛과 공기를 쐬며 걷거나 노동하면서 몸과 접촉시키는 것이 건강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은 18세기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 운동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 있다. 풍경식 정원이 태동되고 널리 퍼진 데에는 경관에 대한 미학과 감정, 그리고 행동반응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에 따른 논의가 바탕으로 깔려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경과 노동문제가 심각해져가던 도시에서 공원은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자연에 쉽게 접촉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도가 주요 개념으로 깔려 있다. 또 쓰레기와 진흙이 뒤엉켜 위생 문제가 심각했던 하천과 습지를 개선하여 공원화하고 인접한 공원과 수목원으로 연계시켜 계통화한 보스턴 공원녹지체계는 도시 공중위생 환경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촉진하는데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한 자연에서 건강과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초창기 미국의 자연주의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주장에도 잘 드러나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자연 속에서의 삶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여 참다운 삶의 의미와 행복을 깨닫기를 주창한 데 반해,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자연을 개인의 건강을 넘어 국가적 정체성을 구축해낼 유력한 자원으로 간주하였다(성종상, 2010). 즉, 신대륙의 건강한 자연환경을 유럽대륙에 비견하거나 능가하는 희망의 징표로 표상화하였던 것이다.

## 2) 녹색-건강 위상학의 분야와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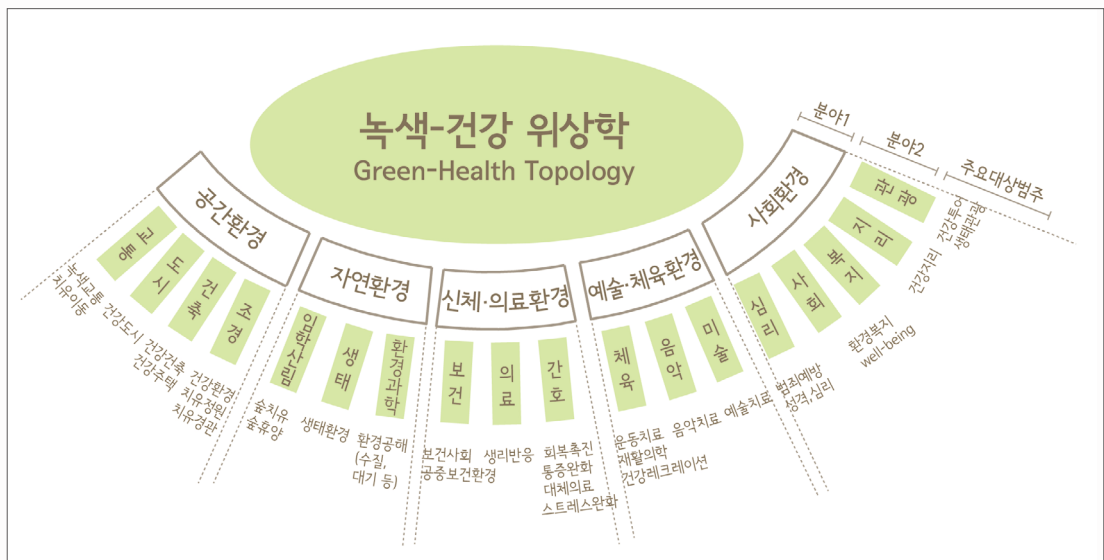
‘녹색-건강 위상학’이란 용어는 도시녹지나 자연이 갖는 건강상의 효용을 여러 관련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구도 속에서 파악하려는 의도로 동원된 개념이다. 건강의 관점에서 도시녹지라는 물리적 공간과 인간 혹은 사회 사이의 만남

과 관계방식을 보건, 의료, 환경과학, 생태, 심리, 사회, 도시, 조경 등 다양한 분야간에 걸친 상호관련성과 작용차원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외의 최근 논의를 토대로 녹색-건강 위상학의 분야와 범주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녹지와 건강이라는 두 대상이 속해 있는 공간과 보건/의학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화되고 있는 중이다.

녹색-건강 위상학의 범주 내에서 현재 국내의 연구와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핵심 주제들도 다양하다. 환경복지, 건강도시(healthy city) 그리고 치유정원(healing garden)과 같은 익숙해진 주제들은 제외하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다소 생경한 주제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치유적 경관(therapeutic landscape)

미국의 의료지리학자 Gesler가 1990년대 초반에 제창한 이래 therapeutic landscape이라는



<그림 1> 녹색-건강 위상학의 분야와 범주



용어는 건강지리학의 핵심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애초 치유적 경관은 치유 혹은 치료, 또는 회복을 위한 자연적·인공적 장소라는 정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물적, 인공 환경과 사회적 조건, 그리고 인간 지각이 결합되어 치유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Gatrelli, 2013)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면서 치유적 경관이나 환경 그 자체보다는 그를 통한 치유적 경관 체험을 더 중시하려는 접근(Conradson, 2005)이나, 조장형 장소(enabling places)라는 개념으로 다른 접근(Duff, 2011)도 제기되고 있다.

### 건강지리학 (health geography)

건강지리학은 건강과 공간적 환경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의료지리학이 다분히 ‘식민적 통치술(colonial art of governmentality)’로서 태동한 것과는 달리 건강지리학은 인간과 그 환경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둬으로써 개인이 경험하는 장소적 정체성에 주목한다(이종찬, 2013). 건강지리학은 의료지리학, 보건지리학과 질병생태학이라는 영역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의료체계(의료지리학)와 집합적 성격으로서의 인구(보건지리학) 보다는 치유적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건강 지리학은 병과 질환의 공간적 분포 및 확산에 관한 분야와, 건강관리 및 치유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분야로 관심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두 영역 모두 건강 또는 질병의 지리적 위치나 공간적 차원을 다룬다는 점에서 녹색-건강 위상학의 범주로 다룰 여지가 있다.

### 치유적 이동(therapeutic mobility)

치유적 이동이란 이동 그 자체를 웰빙과 건강을 유도하는 기제로 보는 개념이다(Gatrelli, 2013). Gatrelli는 건강과 관련된 걷기에 작용되는 차원으로 ‘신체적 활동 activity’, ‘관계 구성(associa-

tion)’, 그리고 ‘배경(context)’에 주목한다. 걷기라는 신체적 활동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걷기 열풍은 대체로 경관과 자연 환경이 양호한 구간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배경’이 고려된 걷기라 할 수가 있다. 때로는 여행 그 자체가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국토경관 속을 발로 걸음으로써 걷기를 몸으로 체험하는 국토대행진은 치유적 경관 속에서 치유적 이동이 융합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 이 경우는 ‘국토’라고 하는 공간(배경) 속에서 같은 뜻으로 모인 동료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정신적 고양감이 더욱 상승된다.



<그림 2> 서울대 건강주간에 설치된 치유정원. 2013.10월.  
(설계/시공: 성종상, 조혜령, 김현지, 노초원, 허지원 외)



<그림 3> Golden Crown On Top of the Basilica Church



<그림 4> Bad-Bruckenaue, Vogelsberg, Germany

### 3) 녹색-건강 위상학의 최근 연구 동향

녹지나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주민의 건강 혹은 행복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잘 소개되어 있다. 건강 회복과 예방 차원에서 물적 환경(녹지, 오픈스페이스 등)과의 상관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Pretty et al., 2005.)

- 첫째, 단순히 자연환경을 눈으로 보고 즐기
- 둘째, 가까운 자연 환경 속으로 들어가기
- 셋째, 자연 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기

녹지와 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참여방식을 기본전제로 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예로는 단순히 녹지공간에 근접해서 거주하는 것이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킨다는 주장과 대도시 내 일상생활 속 걷기를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존재 여부와 노인들의 장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잘 관리된 오픈스페이스로 인한 여가 및 운동에의 능동적인 참여 유발 효과 연구, 자연이나 녹지에의 경험이 주는 질환 예방이나 완화 효과 연구 등에서부터 공동주거에서 잘 유지 관리된 공용의 정원과 범죄나 가정폭력과 상관성을 밝힌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물적 환경이 단순한 경관이나 휴식, 레크레이션 등의 효용뿐만이 아니라 구성원의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건강생성조건으로서 조경(Landscape as a Salutogenic Context)’의 확장된 효용 가치를 입증해주고 있다(Thompson, 2011). 일상 삶 속에서 물적 환경과의 관계로 구축되는 영역성, 장소애착성, 프라이버시, 자기표현 등은 그러한 효용의 중요한 인자이자 기제로 간주된다.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적 요인이나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과 건강을 관련시켜 고찰한 연구도 활발하다. 지역의 물리적 환경은 물론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사회적 자본 등과의 연관성을 건강의 주요 인자로 다룬 연구들은 사회학이나 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 4. 마무리

독일의 크리스토프 코흐는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찾을 수는 있다’는 생각으로 몸소 갖가지 행복 찾기를 실천한 끝에 ‘결혼’과 ‘정원 가꾸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정원을 행복의 방법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삶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는 여럿이다. ‘먹고 살기’ 차원을 넘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많다. 열악해지기만 한 현대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자고 머물며 살아가기’에 적절한 환경일 것이다. 웰빙이나 행복과 같은 추상적 가치들을 측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근래에는 뇌과학, 심리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과학적인 조사 및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주관적 행복을 측정, 평가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관적 감정과 뇌 활동 패턴과의 상관성에 입각한 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이른바 ‘행복의 새로운 과학(new science of happiness)’의 지평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도시 내 공원녹지가 지닌 건강 및 행복에의 영향과 그 기제를 보다 명확히 구명해내려는 조경가에게 유력한 과학적 근거와 방법으로서 이 ‘행복의 새로운 과학’에 걸린 기대는 자못 크다.

이 글은 최근에 여러 학제간에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자연과 건강간의 관계를 ‘녹색-건강 위상학’이라는 다소 거창한 한 개념어로 고찰해 본 것이다. 하지만 도시녹지나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녹색-건강 위상학의 전모를 모두 밝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포괄하는 분야와 범주, 최근의 연구 동향 등을 그것을 바라보는 개념적 시선과 함께 기술하는 정도에서 그쳤을 뿐, 그 구체적인 작용 기제와 과정에 대한 규명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성종상, 2010, “토마스 제퍼슨의 자연관과 조경관”, *환경논총*, 49권, 43-62.
- 이종찬, 2013, “의료지리학: 개념적 역사와 역사적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48(2), 218~238.
- Coley, R., Kuo, F. and Sullivan, W., 1997, “Where does community grow? The social context created by nature in urban public housing”, *Environment and Behavior*, 29(4), 468-492.
- Conradson, D., 2005, Landscape, care and the relational self: therapeutic encounters in rural England, *Health and Place*, 11, 337-348.
- Delemeau, J., 1995. *History of Paradise, the Garden of Eden in Myth and Tradition*. Continuum, N.Y. trans. by O’Connel, M.
- Duff, C., 2011, “Networks, resources and agencies: on the character and production of enabling places”. *Health and Place*, 17, 149-155.
- Gatrell, A. C., 2013, “Therapeutic mobilities: walking and ‘steps’ to wellbeing and health”, *Health & Place*, 22, 98-106.
- Kawachi, I., Kennedy, B. P. and Glass, R., 1999, “Social capital and self-rated health: a contextu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 1187-1193.
- Kuo, F., Sullivan, W. C. and Wiley, A., 1998, “Fertile ground for community: innercity neighborhood common spac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6, 823-851.
- Kweon, B., Sullivan, W. C. and Wiley, A., 1998, “Green common space and the social integration of inner-city older adults”, *Environment and Behavior*, 30(6), 832-858.
- Larson, Jean and Kreitzer, Mary Jo, “Healing by design: healing gardens and therapeutic landscapes”, *Implications*. 2(10).
- Mackerron, George and Mourato, Susana, 2013, “Happiness is greater in natural environment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18. LSE Research Online.
- Pretty, J., Griffin, M., Peacock J., Hine, R., Sellens, M. and South, N., 2005, A Countryside for Health and Wellbe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Benefits of Green Exercise. *CRN Countryside Recreation Network*. Sheffield
- Taylor, A., Kuo, F. and Sullivan, W., 2001, “Coping with ADD: the surprising connection to green play settings”, *Environmental Behavior*, 33(1), 54-77.
- Thompson, W., 2011, “Linking landscape and health: the recurring theme”,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99(3), 187-195.
- Ulrich, R., 1983, Aesthetics and affective response to natural environment, in Altman, I. and Wohlwil, J.(eds.) *Behavior and Natural Environment*, 85-125, N.Y.: Plenum Press.